



칭찬하고 응원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칭찬은 생활의 활력소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릴레이 코너를 마련합니다. <편집자주>

푸른신문에서는 주민여러분의 따뜻한 칭찬과 응원, 미담사례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푸른신문 '칭찬하고 응원해요'란에 들어갈 가족 또는 우리 이웃들에 대한 힘이 되는 메시지와 사진을 함께 보내 주시면 예쁘게 편집해서 실어드립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 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하고 응원해요'는 계속됩니다.



*접수는 이메일 pr5726000@naver.com로 보내주세요.

푸른방송 고객상담팀 장미경 사원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활짝 웃는 모습이 보기 좋은 장미경님을 칭찬합니다. 푸른방송 고객상담팀 웃음꽃 장미경님은 항상 밝은 미소로 직원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인사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웃으면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미경님^^ 항상 응원합니다.

고객상담팀~ 화이팅!!!

'웃는 얼굴은 상대에게도 좋은 에너지로 전달되어 유쾌한 기분이 들게 합니다.'

<칭찬하는 사람이근석>



생활력 강한 나의 오랜 친구 황경희~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친구야~~ 우리 알고 지낸 지 오래됐다. 장난치며 지낸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네~ 얼굴에 주름살봐~~ 아이들의 엄마로 누구보다 하루하루 진짜 열심히 살아온 흔적인 듯 해. 주름살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해~ ㅎㅎ 우리 앞으로도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자!! 너의 강한(?) 생활력을 응원한다. 화이팅!!

<칭찬하는 사람:조정숙>



푸른방송과 푸른신문이 지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달서구 달성군의 중소기업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무료**로 연속 게재하고 있습니다.

기획 기사를 통해 가계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니 지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홍보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푸른방송 551-2000, 푸른신문 572-6000